전수산의 공연 활동에 구현된 20세기 초 한인 디아스포라 근대 여성의 표상

최 희 영*

1. 머리말
2. 하와이에서의 전수산의 삶
3. 전수산의 공연 활동
4. 관습과 편견에 도전한 전수산의 공연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여성 독립운동가인 전수산의 20세기 초 하와이에서의 공연 활동을 고찰하여 근대 여성으로서의 문화적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200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은 전수산(田壽山 Susasn Chun Lee, 1894~1969)은 1894년 5월 23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1남 3녀의 막내로 출생했다.[1] 1919년 하와이에 이민 온 이후에 다른 한인 여성들과 함께 한민족 독립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회 활동에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공채를 발행하자 미화 15불 상당의 공채를 매입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고, 1919년 4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립된 하와이 부인단체의 통

*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1) 전수산이 타계 후였으므로 그녀의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미국에서 와서 대신 훈장 전수식에 참석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립유공자 2명에 한국정부 건국포장」『한국일보』, 2002년 9월 12일자 신문 기사 참조.

일기관인 대한부인구제회(The Korean Ladies Relief Society)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전쟁에 필요한 후원금을 제공하였으며, 애국지사 가족들에게 구제금을 송금하는 등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는 이승만이 결성한 동지회(Comrades Society)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승만을 후원하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하와이 호놀룰루 대한인부인구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중국 중경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이승만 등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였다.[2] 한편 1969년 6월 24일자 하와이 지역 대표 신문인 『호놀룰루 스타 불레틴(*Honolulu Star-Bulletin*)』은 전수산의 타계 소식을 알리며 그녀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한글학교, 음악, 연극 교사로 한인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던 전수산 여사가 73세의 나이로 지난 목요일 [1969년 6월 19일] 엘에이에서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그녀는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Honolulu Academy of Arts)에서 한국 관련 수업을 가르치고 고문으로 활동해왔으며 그밖에 하와이 내 다양한 교회와 문화 단체에서 수업을 담당했습니다.[3]

전수산의 부고 소식을 알리는 하와이 지역 신문 기사에 가장 처음 눈에 띄는 문구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아닌 한인사회 문화발전에 공헌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수산은 하와이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예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던 것일까? 그녀가 호놀룰루 미술관의 전신,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이하, 호놀룰루 아카데미로 약칭)에서 가르친 한국 관련 수업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활동한 교회와 문화 단체는 어디였으며 조직 내에서 펼친 문화 활동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필자는 전수산이 일생에 가장 오랜 시간 거주했던 하와이에서의 191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까지 음악 활동, 특히 그녀의 호놀룰루 아카데미 내 공연 활동을 밝히고자 한다.[4] 이를 일제 압제하(1910~1945)에 있

2) 전수산의 출생 및 이주 배경에 관해서는 이덕희, 2018「이화학당 졸업생의 하와이 이민생활」『한국 근대 여성의 미주지역 이주와 유학』(김성은 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61-265면 참조.

3) "Susan Lee Dies; Former Teacher", *Honolulu Star-Bulletin*, 24 June 1969. 필자에 의해 번역됨.

던 당시 한반도 내 전통음악계 관습과 비교하는 한편 하와이 도심 지역의 다문화 환경 맥락에서 고찰할 것이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한 갈래인 20세기 초 한인 디아스포라 여성에 관한 연구는 미주지역에 있는 1세대 한인 남성들과 사진 교환을 통한 중매결혼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진 신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주로 그들의 경제·사회적 활동[5] 및 독립운동 활동에 주목해왔다.[6] 유학생 혹은 한국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유학생, 사업가, 혹은 정치 망명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이주하게 된 미주지역 내 지식층 한인 여성의 음악문화 활동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1928년 한인들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조직된 형제클럽(Hyung Jay Club) 활동에 주목한 리카 리(Rika Lee)[7]와 최희영[8]의 연구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전수산의 인물사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같은 이화학당 졸업생인 이정송, 김성임과 함께 전수산의 하와이 내 사회 활동사를 밝힌 이덕희의 글[9]이 유일하다. 쥬디 벤 자일(Judy Van Zile)은 전수산이 형제클럽 지도자로 활동했음을 밝힌 논문[10]을 처음으로 소개

4) 전수산이 하와이에 거주했던 정확한 연도는 1916년부터 1953년까지이다(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다만 본 연구는 전수산의 음악적 소양을 이해하기 위해 집안 및 교육 배경을 함께 살펴보며 그녀의 음악 활동은 1950년 직전까지만 기록되어 있기에 논문의 제목을 20세기 초로 정하였음을 밝힌다.

5) Eun Sik Yang, 1984 "Korean Women of America: From Subordination to Partnership, 1903-1930", *Amerasia Journal* 11(2), pp.1-28.

6) 박용옥, 1996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 14; 김경일, 2006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 11; 김성은,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역사와 경계』 68; 심상훈, 2013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경북여성들의 민족운동」『동아인문학』 26; 양현혜 2020 「김마리아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대한 조선과 일본 언론의 반응」『한국문화연구』 39.

7) Rika Lee, 2017 "Inventing Korean Tradition in Hawai'i: Race Relations and Modernization of Korean Immigrant Women in Prewar Hawai'i", *Yeoseong gwa yeoksa* 26.

8) 최희영, 2021a 「정착형 식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와이 한인사회의 첫 영어 연극 분석」『한국예술연구』 32; 최희영, 2021b 「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사회의 「혹부리 영감」 각색공연 고찰」『한국학』 44(1).

9) 이덕희, 앞의 글, 255-286면.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녀가 어떠한 음악 활동을 펼쳤는지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전수산의 공연 활동이 기존 한반도 내 전통 음악 문화계에 존재해왔던 관습과 인식을 타파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세기 초 한인 디아스포라 근대 여성의 표상을 보여주었음을 논증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필자가 2018년 여름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 방문하여 수집한 전수산컬렉션(Susan Chun Lee Collec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1] 부차적으로 호놀룰루 지역 신문과 비숍 미술관 아카이브에서 채집한 공연 관련 자료들도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2. 하와이에서의 전수산의 삶

최초의 미주 한인 이민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을 태운 갤릭호가 하와이 호놀룰루항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이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곧바로 미주 이민을 중단하기까지 총 7000명이 넘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하와이는 19세기 중반부터 노동집약적 사탕수수 농장 사업을 시작하였고 첫 한인 이민단은 이 사업에 중요한 노동 인력으로 투입되었다.[12] 대부분이 미혼 남성으로 이루어졌던 이들이 하와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진신부 정책이 도입되었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900명이 넘는 한국 여성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여 가정을 꾸리며 한인사회를 이루었다.[13] 농장노동자 이민자와 사진

10) Judy Van Zile, 2007 "Korean Dance in Hawaii", Yong-Ho Ch'oe Ed, *From Land of Hibiscu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256-277.

11) 이덕희의 앞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때 전수산의 외손자 티모시 초이(Timothy Choy)가 할머니의 소장품을 기증하였다. 이 자료가 '전수산 컬렉션(Susan Chun Lee Collection)'으로 분류되어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되어있다. 이 컬렉션에는 전수산과 전수산 가족들의 여권, 학위 수여증과 전수산이 스크랩했던 신문 기사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2) 이현주, 2002「한말 인천의 화교유입과 하와이 이민」『한국독립운동사연구』8, 8면.

13) Tae-Ung Baik and Duk Hee Lee Murabayashi, 201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rly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and its Legal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aw* 11,

신부로 이루어진 부모 사이에 2세들이 태어나면서 하와이 지역 내 한인사회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1910년 후반부터 1920년 초반에 이르러 본격화되는 도심 집중화 현상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한인 1세들은 자영업이나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2세들이 좀 더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장을 벗어나 오아후에 있는 호놀룰루를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으로 이동했다.[14] 한편, 3·1운동을 전후로 증가한 유학생들도 점차 한인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들 중 미주 독립운동의 요충지인 하와이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전수산이 하와이에 이민 온 1910년 후반부터 호놀룰루 지역은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그들의 도시 삶이 정착화된 공간이다.

이때 주지해야 할 점은 전수산이 위에서 서술한 한인들과는 조금 다른 연유로 하와이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하와이 삶은 1916년 사업을 위해 미주 땅에 머물렀던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당시 2살이었던 딸, 스텔라(한국 이름: 옥희)와 함께 배에 오르면서 시작된다. 전수산은 고위급 양반 자제의 자녀였다. 그녀의 오빠는 조선사람으로는 처음 일본에 가서 학위를 받은 후 서양식 의료업계의 유명한 의사가 된 인물로 서울에 있는 경성병원의 장을 맡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 정착하게 되면서 전수산 또한 이화학당으로 서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전수산에게 첫 남편인 류 씨(K. S. Lyu)를 소개해 준 장본인이기도 하다.[15] 당대 명문인 진명여고와 이화학당을 졸업한 전수산은 당시 하와이 한인 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900명이 넘는 사진 신부들과는 다른 교육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여성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영어는 고사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진 신부들과는 달랐다.

전수산은 1916년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현재의 성 누가 교회 내 한글학교에서 한인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그 무렵 전수산의 남편은 보스톤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엘에이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하와이를 오고 가던 때였다. 1917년

---

pp.93-94.

14) Wayne Patterson, 2000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68-79.

15) 이덕희, 앞의 글, 262면.

남편 류 씨가 호놀룰루로 와서 전수산과 합류했고 두 사람 사이에 둘째 딸인 엘렌(Ellen O.I. Lee)이 태어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둘은 별거하고 곧 이혼하게 된다. 이듬해인 1920년 5월 25일, 전수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바로 헨리 리(Henry D.B. Lee)로 알려진 이동빈(1899~1947)과 결혼하면서부터이다. 이동빈은 1905년 6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하와이에 도착한 1.5세로 힐로사립학교와 미드페시픽학교를 졸업하고 전수산과 결혼할 당시 와이아루아 설탕 회사에 화학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전수산은 1920년부터 호놀룰루 지역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와이아루아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간다. 전수산과 이동빈 사이에 4명의 자녀들이 탄생하여 총 6명의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형성된다.[16] 전수산의 공연 활동은 자녀들의 문화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전수산컬렉션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생애와 특이사항을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u>전수산과 이동빈의 자녀</u>

- 스텔라(Stella O.H. Lee, 1915~2010): 와이아루아 릴리후아 고등학교 졸업,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 하와이에 계속 거주. 미혼. 형제클럽 멤버로 호놀룰루 아카데미 공연 무대에 참여.
- 엘렌(Ellen O.I. Lee, 1917~2008) : 중고등학교시절 학교 연극 공연에 다수 참여. 에드워드 최와 결혼하여 티모시를 낳으나, 이혼. IBM과 미국 정부에서 근무. 후에 대령 크레그 씨와 재혼.
- 조셉(Joseph C. Lee, 1921~1973): 세인트루이스학교와 하와이대학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 대학 시절 사무엘과 함께 교내 연극 공연 참여.
- 사무엘(Samuel C. Lee, 1923~1982): 학창 시절 다양한 연극 공연에 다수 참여. 하와이대학 졸업 후 미군 군인으로 일함. 결혼.
- 도로시(Dorothy A. Lee, 1926~2009): 형제클럽 멤버로 호놀룰루 아카데미 공연 무대에 참여. 교회 합창단과 오르간연주자로 활동. 이민사무소 직원으로 근무. 1950년대 초에 전수산과 함께 캘리포니아 이주.
- 로즈(Rose A. Lee, 1933~1986): 형제클럽 멤버로 호놀룰루 아카데미 공연 무대에 참여. 하와이 음악대학 성악 전공. 1950년대 초에 전수산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이주.

16) 전수산과 이동빈 사이에 이들 외에도 메리(Mary)와 아서(Arthur)가 태어났으나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함으로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2002년 건국훈장 수여 시 독립 운동사에 가려져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전수산의 다양한 공연 활동은 1920년 후반 호놀룰루 여성기독교연합회(YWCA) 내에 한인 문화 활동을 위해 설립된 형제클럽 창단과 함께 시작된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한창이던 1930년 후반 이동빈이 호놀룰루 시내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이때부터 전수산이 본격적으로 음악 공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1947년 남편 이동빈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된 전수산은 여섯 자녀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한민족 문화를 지키고 지역 사회에 소개하는 데에 헌신하였다. 아래 항에서 전수산이 형제클럽을 중심으로 한 공연 활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전수산의 공연 활동

전수산의 공연 활동을 살펴보면 호놀룰루 아카데미와 관련된 활동이 눈에 띈다. 호놀룰루 아카데미는 1920년 후반 설립되어 하와이 도심 지역 문화 환경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화 기관이었다. 설립자는 백인 선교사 후손인 앤 라이스 쿡(Anne Rice Cooke, 1854~1934)이었다. 쿡은 세계를 다니며 직접 골동품과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관을 설립하였다. 미술관은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배경을 지닌 주민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음악 공연과 강습 등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다민족 주민들 간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녀의 공헌은 높이 살만하다.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아시아 축제의 모습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하와이 인구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호놀룰루 아카데미는 이들에게 각 민족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미술관 실내·외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각 이민족 주민들에게 축제 행사 무대의 기획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역적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1928년부터 매년 5월이나 6월 호놀룰루

아카데미 후원으로 이루어진 한인 봄축제는 이러한 아시아계 이민자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더불어, 1930년대 후반부터 각 이민자 사회의 공연자들이 짧은 형태의 민요나 전통춤을 연이어서 보여주며 문화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다.

이때 주지해야 할 점은 미술관이 설립된 무렵 형제클럽이 출범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제클럽은 한국의 전통 풍습과 문화를 보존하고 2세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였다. 창립자 황혜수는 1882년 의주 출신으로 30세의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알라바마 주 애선스 대학 사회사업학과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YWCA에 채용되어 하와이에 거주하게 되었다.[17] 형제클럽은 YWCA 오아후 지점에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제부(International Institute) 소속 단체 중 하나였다.[18] 회원은 한인 1.5세 혹은 2세들로 구성되었으며 호놀룰루 지역의 가장 큰 공립학교인 보통학교와 맥킨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부분이었다.[19] 1920년대 말에 설립된 호놀룰루 아카데미와 형제클럽이 존재했기에 하와이 지역 사회에서의 한국전통문화 보존과 무대화가 가능했다.

형제클럽의 공연 레퍼토리는 꽤 다양했다. 농부가, 흥타령, 난봉가, 사발가, 시조, 아리랑 등의 전통 성악곡을 장고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가 하면 널뛰기, 수박치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를 재연하기도 하였다.[20] 또한, 한국 전통 무용 동작을 전통 음악 반주에 맞추어 선보이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형제클럽의 공연은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사진 자료와 함께 신문 기사, 공연물 책자 및 연극 대본 자료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추적할 수 있었다. 형제클럽은 한인의 대표 공연물로 다양한 전통 놀이와 음악, 무용공연을 접목하여 새롭게 제작한 영어 연극을 자주 선보였다. 아래 〈그림

17) R. Anderson Sutton, 1987 "Korean Music in Hawaii", *Asian Music* 19(1), p.104; Judy Van Zile, *op.cit.*, pp.257-258.

18) Judy Van Zile, *op.cit.*, p.258.

19) "Korean Girls Club to Present Play Depicting Home Life, Jan. 14", *The Honolulu Advertiser*, 8 January 1928; "Korean Girl's Staging Play", *Honolulu Star-Bulletin*, 19 May 1934[최희영, 앞의 논문(2021a), 107면 재인용].

20) Heeyoung Choi, 2020 "Beyond Nostalgia: "Arirang"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Eumak gwa munhwa* 43, pp.101-168.

1〉은 형제클럽이 1938년 한국 봄축제에 초연한 영어 연극, 〈심청(Sim Chung)〉의 한 장면으로 한국의 전통 놀이를 재연한 부분이다.

〈그림 1〉 형제클럽의 연극 〈심청〉의 단오절 재연 장면
(출처: *The Honolulu Advertiser*, 5 May 1938.)

일제강점기 중 해외에 소개된 다채로운 한인 공연 무대에 전수산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944년 9월 1일자 지역 신문에 한국 고유의 춤이 전수산에 의해 지도되었는데, 전수산은 "한국의 해석된 (전통)춤 및 다른 여러 여흥과 전시의 전문가"로 소개되어있는 점이 눈에 띈다.[21] 또한, 이민자들의 민속 노래를 소개하는 행사가 1930년 중반 호놀룰루 아카데미에서 열렸는데, 이때 전체적인 기획과 장고 반주를 맡았던 이가 전수산으로 신문과 공연 책자에 기록되어 있다.[22] 한편 1931년 와이아루아 한인 교회에서 25명의 젊은 한인 남녀들이 전수산의 남편, 이동빈의 지도하에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자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때 조직 결성을 후원해 준 이들을 위해 전수산이 몸소 한국의 민요(Korean

21) "Koreans Plannning Banquet Sunday for Del. Farrington", *Honolulu Star-Bulletin*, 1 September 1944.

22) "Music of Many Races at the Academy", *Honolulu Star-Bulletin*, 4 May 1935.

folk songs로 기록되어 있음)를 선보이기도 했다.[23] 그녀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공헌은 해방 후에도 지속 되었다. 가령 1948년 호놀룰루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아시아 춤 축제(Oriental Dance Festival)에서 한인들의 무대를 이끌었다.

전수산이 이민 오기 전 한반도에서 예술 활동을 벌이거나 교육받았다는 기록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전수산이 하와이 한인사회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필자는 이동빈이 와이아루아 한인 교회에서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인 황사용(黃思溶 Sa Yong Whang, 1881~1964)[24]을 도와 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시기는 황사용의 여동생인 황혜수(黃惠壽 Ha Soo Whang, 1892~1984)가 형제클럽을 창단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작은 한인사회 내 인맥을 통해 한국 문화 존속에 열의를 가지고 있던 전수산이 전통문화 공연 기획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형제클럽의 창시자인 황혜수 또한 사회학을 전공한 지식층이었다. 따라서 단원들에게 한국 음악과 춤을 전수할 다른 1세대 강사를 필요로 했다. 이때, 이민 오기 전 궁에서 의술을 담당한 오빠를 따라 궁에 방문 시 궁중 무용과 음악을 접한 경험이 있던 전수산이 형제클럽 교사로 투입된 것이다. 전수산은 비전문가로서 단지 관객으로 궁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에 의존하여 한국 무용 동작을 가르쳤다.[25] 전수산으로부터 한국 노래와 무용을 교육받은 형제클럽 한인 2세들의 무대는 당시 한반도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지던 전통 공연 무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전수산을 포함한 아마추어 공연자들이 '조선적'이라고 인지한 전통문화 요소들을 각색하여 엮은 해석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채로운 한국 전통 음악과 춤을 각색 과정을 통해 비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전수산의 존재는 국적을 상실한 채 먼 미주 땅에 살고 있던 한인사회에 중요한 문화적 시사점을 지녔음이 분명하다.

---

23) "Waialua Young Koreans Organize Society", *Honolulu Star-Bulletin*, 24 Sep 1931.

24) 황사용의 독립 운동사에 관해서는 박종연, 2012「재미한인 황사용의 민족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72 참조..

25) Judy Van Zile, *op.cit.*, p.258.

더구나 조선 사회에서 춤은 기생이나 추는 '천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 예로 양반 출신인 최승희(崔承喜, 1911~1969)가 춤을 추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인들이 맹렬하게 반대했었다. 오빠인 최승일이 반대하는 부모에게 "조선 예술계를 위하여 선구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득하여 간신히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26] 무용계에 몸담는 것이 학교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숙명 여학교 교사가 최승희의 도쿄 유학 행을 막으려고 했다는 설도 있다. 숙명 여학교 측은 최승희가 이시이 바쿠 무용단의 일원이 되어 무용가로 성공한 이후에야 최승희를 환대했다.[27] 전수산 또한 이러한 전통문화 예술인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지니고 있던 한반도에 오래 살았었다. 최승희와 같은 양반 출신 지식층으로서 전문 예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통예술 공연에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 한반도를 떠나 먼 이국땅에 정착한 1세대 한인 이민자들에게 있어 전통 공연 무대는 조선의 하층 계급이었던 예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경제의 상위층을 점유하고 있던 백인 지식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였으며, 따라서 사회적 오명을 쓸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28] 더불어 모국이 일제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던 시기에 이민 땅에서 일본계 이민자 숫자에 비하면 훨씬 소수의 이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인들에게 공연 문화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새 이민 땅에서의 한국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한민족 문화 알리기에 중심 역할을 한 디아스포라 내 전통 공연을 향한 한인사회의 인식은 긍정적이었고 당연히 여성들의 전통 공연 참여에도 우호적이었다. 요컨대 전수산의 공연 지도와 참여는 당시 시대상과 지역 문화 환경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다. 여성 이민자들의 독립운동, 경제 참여와 함께 비

26) 최승일 편, 2006『불꽃: 1911~1969, 세기의 춤꾼 최승희 자서전』, 자음과 모음, 21면.

27) 김경일 외, 2015『한국 근대 여성 63일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42-443면.

28) R. Anderson Sutton은 전수산의 공연 참여를 다루지 않았으나 황혜수를 비롯한 1세대의 형제클럽의 지역행사 무대 참여 지원을 논하면서 이러한 논지를 펼쳤다. 최희영은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정착형 식민주의' 관점에서 백인층과의 유대감을 강화한 한인들의 음악 활동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담론은 R. Anderson Sutton, *op.cit.*, p.104; 최희영, 2021a 앞의 논문 참조.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전통 공연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수산의 삶은 근대 여성의 표상을 제시해준다.

4. 관습과 편견에 도전한 전수산의 공연 양상

본 장에서는 전수산이 지식인층 아마추어 예술인으로서 디아스포라 다문화 행사에서 대중을 상대로 전통공연을 재연했다는 점을 넘어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통 유산을 보존하고 소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형제클럽을 중심으로 전수산, 그리고 그녀 가족의 음악 활동 모습을 분석하여 어떠한 연행 방식으로 기존 관습에 도전하였는지 살펴보자.

1) 비기독교적 공연물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 음악문화 수용

전수산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한인기독교회 내 여러 행사를 주도하고 특히 어린 청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었다.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은 비단 전수산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인사회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당시 하와이 거주 한인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미주 이민은 선교사들의 주도와 개입 아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는 성도를 중심으로 홍보가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 이민 온 한인 중 상당수가 이미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소수의 불교 신자도 있었고 아예 종교를 믿지 아니한 자들도 존재하긴 했다.[29]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이 하와이 미주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담당하고 있던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잠깐 머무는 장소가 아닌 후손대대가 살아가야 할 생활 근거지에 사는 정착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지면서 1세대 한인은 물론이요 그의 자식들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1940대에 이르러서는 하와이 한인사회 문화를 곧 기독교 문화와 연결하여 인지할 정도로 기독교가 깊

29) 최대희, 2019「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사회와 '불교의 부재」『민족연구』73; 김원용, 2004『재미한인오십년사』, 혜안, 29면.

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30] 기독교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한인사회에서 유교, 불교 및 무속 신앙에서 비롯된 여러 한민족 고유문화를 무대화하여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하와이 지역민들에게 선보인 점은 특이할 만 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점은 1930년대부터 하와이섬의 주 도심지인 힐로 지역의 한인 주최 행사에 종종 이름이 등장했던 채용하(Young Ha Chai, 1872~?)가 형제클럽에 새로운 교사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1905년 노동자 지위로 하와이에 온 1세대 이민자로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한국 전통춤과 음악에 대한 지식은 힐로 지역 내에서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던 것 같다. 그러나 1930년대 말부터 전문 예능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채용하의 존재가 하와이 전 지역에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호놀룰루 아카데미의 주최로 열린 1928년 한인 봄축제에서 형제클럽이 초연한 〈코리안 걸즈 싸이클 오브 조이(A Korean Girl's Cycle of Joy)〉를 10년 후인 1938년 5월에 새롭게 각색하여 힐로 지역에서 선보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배꽃(Pear Blossom)〉이란 새로운 제목으로 길성회(Kil Sung Hur)라는 힐로 지역 내 한인 문화 단체에 의해서 재탄생된 이 공연은 본래 연극의 배역 이름이나 줄거리가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그 안에 음악적 요소인 노래와 춤 부분을 이민 오기 전 승려 출신으로 궁중 안팎에서 다수의 공연 경험을 가진 채용하가 새롭게 각색한 형태였다.[31] 이 공연 이후 황혜수가 채용하를 찾아가 형제클럽 교사로 일하기를 제안하매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32] 채용하가 영입된 1930년 후반부터 호놀룰루 한인 청년층의 공연 기록에는 긴 소매의 하얀색 한복에 흰 고깔을 쓴 무용수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는 채용하의 예술적 재능이 알려지면서 호놀룰루 지역에서 그를 초빙하여 승려 출신인 그로부터 불교에 입각한 공연 문화를 배우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다.

---

30) David K. Yoo, 2006 "Nurturing Religious Nationalism: Korean Americans in Hawaii", Laurie Maffly-kipp et al Eds, *Practicing Protestant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p.100-117.

31) "Korean Play Enjoy Here", *Hawaii Tribune-Herald*, 7 May 1938; "Life of Korean GIrl Will Be Seen in Play", *Hawaii Tribune-Herald*, 5 May 1938; "Cast of Play Announced", *Hawaii Tribune-Herald*, 24 Apr 1938.

32) Judy Van Zile, *op.cit.*, p.259.

〈그림 2〉 1948년 대한민국 건국 기념 축제에서 도로시와 로즈를 포함한 한인 2세 여성들의 공연 모습 (출처: 전수산 컬렉션,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그동안 전통 성악곡과 궁중 무용 동작 중심으로만 형제클럽 공연 지도를 맡아오던 전수산에게 채용하의 입단은 가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해방 후 전수산의 딸인 로즈가 한반도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와 지역행사 중 하나인 세계무용축제에서 승무를 선보였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된다. 형제클럽 창단회원의 교사였던 전수산은 이러한 공연예술이 기독교 문화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한민족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승려 출신이었던 채용하의 특기를 적극적으로 익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로 다가갔다. 애더슨 서튼(R. Anderson Sutton)은 형제클럽 창립자인 황혜수가 하와이 내 한민족 문화 보존에 공헌한 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한 바 있다.

> 황혜수와 같은 독실한 기독교 신념을 지닌 자가 전통 한국 예술을 보존키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형제클럽 회원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있어 다문화 환경이 정착된 하와이에서의 한국 음악과 무용은 한국성(Korean-ness)을 보여주는 주요 매개체였다. 한국 전통 공연은 한국의 봉건 궁중 문화나, 불교, 무속 신앙을 대표하는 특정한 하위문화를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이들의 무대 공연은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한국성을 하와이 지역민에게 소개해 주는데에 목적을 두었다.[33]

형제클럽 지도자로서 전수산의 다양한 한국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는 위의 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나 봉건 제도 아래에서 탄생한 궁중 무용, 유교·불교·무속 신앙 등에 바탕을 둔 다양한 한국 음악과 무용을 문화적 유산으로 받아들인 태도 덕분에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2세 한인 공연자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하와이 지역사회에 소개할 수 있었다.

2) 세대, 성별, 출신을 뛰어넘은 한인들의 공연 활동

위에서 언급한 채용하 외에도 한인 1세 중장년 남성들이 형제클럽 공연에 합류하였다. 공연물 자료와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1922년부터 1927년까지 하와이 한인사회에 전통 음악 보존에 기여 해왔으나, 5~6년이란 짧은 활동만을 남기고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남풍사(Nam P'ung Sa) 회원들이었다. 남풍사는 미주지역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독립운동단체, 국민회의 산하 단체로 김홍섭을 필두로 박한봉, 김영운, 고경식, 박사욱, 최용선, 박세환에 의해 설립된 관·타악기 연주단이었다. 이들은 악기는 물론이고 의복과 도구 등을 본국으로부터 가져와 2세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 음악을 익히고 하와이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했으나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금방 해체되었다.[34] 그러나 남풍사 창단회원의 일부가 형제클럽이 선보인 공연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1936년 3월 31일 〈코리안 걸즈 싸이클 오브 조이〉가 백인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다녔던 푸나후 사립학교 강당에서 단오 풍습을 재연한 〈오월단오(Korean Spring Festival)〉와 함께 〈혼인애비(Honin-Yaybi〉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공연 무대에 올려졌다. 이 공연 소책자에 '오케스트라'라고 소개된 연주자 중에 앞서 나열한 남풍사 창단회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인 봄축제 공연에 관한 지역 신문 기사에 따르면 "중장년 한인 남성 연주자들이 피리, 징, (북 혹은 장고로 추정되는) 드럼 등을 연주하며 특이한(unusual) 리듬으로 춤을 반주한다"고 서술하였다.[35] 이 중에서도 1차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남풍사

33) R. Anderson Sutton, *op.cit.*, p.104. 필자에 의해 번역됨.

34) *Ibid.*, p.103; Warren Y. Kim, 1971 *Koreans in America*, Seoul: Po Chin Chai Printing Co., pp.45-46.

리더 김홍섭은 1928년에 형제클럽이 창단된 이후 곧바로 전수산, 황혜수를 보조하여 형제클럽의 한인 소녀들이 연극 시연에 필요한 연기와 민요, 전통 춤동작 등을 익히도록 지도한 것으로 여겨진다.[36]

요컨대 중장년 한인 1세대 남성들로 이루어진 남풍사의 창단회원 중에서 일부가 전수산이 몸담은 여성 중심의 형제클럽 회원과 함께 새롭게 각색한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한인들끼리 전통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192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어 있던 다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음악문화와 풍습을 엮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물을 기획, 제작하여 다수가 비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주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한인 2세대 청년의 참여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다. 형제클럽의 공연물을 살펴보면 처음 창단되자마자 여성 위주로만 구성된 형태로 무대화되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인 남성 2세들의 참여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1928년 형제클럽이 처음 공연을 선보일 당시 전부 여성들의 연기로 이루어졌다. 연극의 주연인 신부 외에도 중요한 배역인 신부와 신랑 측의 아버지, 심지어 신랑 역할까지 한인 2세 소녀들이 맡아서 했다.[37] 그러나 아래 〈그림 3〉에도 나타나듯이 1938년과 1941년 한인 축제 무대에 오른 〈심청〉과 〈혹부리 영감〉을 각색한 영어 연극에는 한인 2세 남성들이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38] 그뿐 아니라 1934년도에 새롭게 연출된 〈코리안 걸즈 싸이클 오브 조이〉의 경우 바이올린과 풀룻을 연주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때 연주자는 여성이 아닌 한인 남학생이었다.[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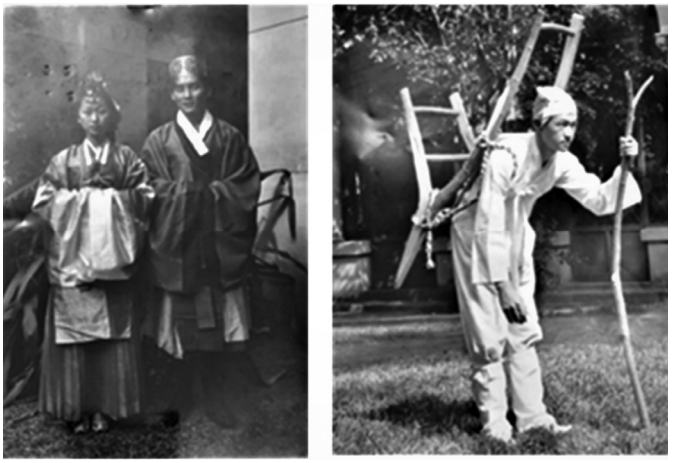
35) "Korean Spring Play Pleases", *Honolulu Star-Bulletin*, 1 April 1936(최희영, 2021a 앞의 논문, 108면 재인용).

36) 필자는 김홍섭을 중심으로 남풍사 창단회원의 하와이 이주 전 음악 경력과 함께 남풍사에 관한 활동사를 소상히 밝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37) 본 내용은 비숍 미술관 아카이브에 보관중인 "Ethnic Culture, Korean" 파일과 호놀룰루 미술관 아카이브에 소장 중인 "Korean Festivals" 파일에서 발췌하였다.

38) 〈심청〉의 심청, 심학규, 왕의 역할은 각각 Jane Choy, Adam Lee, Robert Ahn이 맡았으며, 〈혹부리영감〉 각색 연극의 혹부리 영감 역할은 Alfred Hong이 담당하였다. 〈혹부리영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최희영, 2021b 앞의 논문 참조.

39) "Korean Girl's Staging Play", *Honolulu Star-Bulletin*, 19 May 1934. 바이올린은



〈그림 3〉 형제클럽 연극 〈심청〉과 〈혹부리 영감〉 출연진 (출처: 호놀룰루 미술관 아카이브에 보관된 "Korean Festivals" 파일)

전수산의 가족들도 성별 차이에 상관없이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두 예술인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제2장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6남매 중 막내딸이었던 로즈만이 오페라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수산의 자녀들은 학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까지도 연극 혹은 음악 공연 무대에 섰다. 이 중 각각 미식축구와 군인이었던 두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남편, 이동빈의 격려와 응원도 한몫했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실례로 1935년 10월 9일 와이아루아 국제 사교 모임(the Cosmopolitan Social Club of Waialua)에서 3막 구성의 〈Aunt Emma Sees it Through〉라는 풍자 코미디극을 공연하였는데 이동빈 자신도 한 배역을 연기하며 공연 활동에 참여하였다.[40]

전수산은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이 대중 앞에 서는 공연 무대에 서는 것에 지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수산의 자식들을 포함한 한인 2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뿐 아니라 특정 장르와 공연 주제를 초월한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게 인도했던 부분은 당시 한반도에 존재했던 전통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Andrew Park이 풀룻은 Henry Kim이 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40)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 보관되어있는 전수산 컬렉션에는 전수산과 그 가족 일원이 참여한 공연을 스크랩한 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3) 여성의 타악기 연주

공연 무대에서의 전수산의 몫은 그녀의 딸들을 포함한 한인 2세들이 재연한 민요나 전통춤에 장구 반주를 해주는 것이었다.[41] 전수산이 장구 치는 것을 언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알 길이 없다. 아마도 형제클럽이 창립되자마자 이전 남풍사 창립 회원이었던 김흥섭이나 다른 중장년 남성 악기 연주자로부터 2세들과 함께 장구를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도로시와 로즈에게 전통 민요와 춤을 배우게 하고 한인을 대표하는 축제에 자주 출연했음은 위에서 이미 주지하였다. 필자는 이에서 더 나아가 전수산이 남풍사 회원들이 선보였던 민속 음악에 쓰인 타악기 연주를 딸들과 함께 즐겼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4〉는 1940년대 중반 한인 교회 야유회의 한 단상으로 타악기 연주를 즐기고 있는 도로시와 로즈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림 4〉 1940년대 중반 도로시와 로즈가 소고와 꽹과리를 치고 있는 모습 (출처: 전수산 컬렉션,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41) "한국 춤을 춘 딸들과 함께 장구를 친 전수산"의 사진 자료는 이덕희, 앞의 글, 267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을 상대로 민속 음악이나 춤 반주를 하는 타악기 연주자들은 남풍사 회원들이 증명해주듯이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령,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중 한반도 내 한국 음악 풍경을 찍은 도상 자료 모음집, 『근현대 한국음악 풍경』에 기생이 추는 춤에 반주 음악은 모두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다.[42] 더구나 위 도상 자료에 묘사된 꽹과리와 소고는 농업 사회에서 유래한 음악인 풍물 음악에 각각 리듬을 이끌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타악기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악기였다.[43] 데보라 웡(Deborah Wong)은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여성 이민자들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타악기를 연주하였음을 밝히며 이를 먼 이민 땅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으로 해석한 바 있다.[4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수산과 그 딸들이 자유롭게 타악기 연주를 즐기는 모습은 관습을 벗어난 디아스포라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와이 한인사회는 한민족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여성들의 전통공연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관습과 편견에 도전한 전수산의 전통 공연 활동 양상에 대해서도 공연 내용의 정통성(authenticity)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호적이었으며 이에 저항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양반 자제로 태어나 이화학당 졸업 후 남편을 따라 하와이로 이주한 전수산의 20세기 초 음악 공연 활동을 분석하여 그녀의 문화적 삶 속에

42) 국립국악원 편, 2007 『근현대 한국음악 풍경』, 국립국악원.

43) 1959년 '여성농악단'출현 이전에도 여성으로 이루어진 농악 연행 행사가 존재했으나 농악을 상품화된 무대에 올리면서 등장했던 소수의 현상이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양옥경, 2021 「농악 공연문화에서 바라본 젠더, 여성, 여성농악」 『한국음악사학보』 66 참조).

44) Deborah Wong, 2000 "Taiko and the Asian/American Body: Drums, 'Rising Sun,' and the Question of Gender", *The World of Music* 42(3), pp.67-78.

서 표상되는 근대 디아스포라 여성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내 신여성에 대한 담론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오고 있다. 소위 모던걸 혹은 신여성이라 불리던 근대 여성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근대 여성의 표상은 단발머리나 서양식 복장 등의 겉모습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고등 교육이나 유학을 통해 끊임없이 배움에 정진한 여성들의 삶에서 증거되어 지기도 한다. 남성의 범주로만 여겨지던 여성 의사, 교육가, 작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룬 공장 노동자, 카페직원, 기생의 삶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정일은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주부들도 근대 여성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독립 운동을 외쳤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모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인권 신장, 사회 활동, 민족운동 참여 등을 옹호했던 여성들이다. 요컨대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계없이 기존 관습을 타파하는 새로운 태도, 삶의 방식,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신여성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45]

전수산의 삶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신여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녀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2세들의 한민족 문화 교육을 위해 사회 활동에 나섰으며 사회적 편견을 깨고 두 딸을 데리고 이혼한 후 그녀보다 몇 살 어린 이동빈과 재혼하였다. 재혼 후 그녀의 문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문적 교육 경험이 없었으나 간접 경험을 활용하여 한인 문화 단체인 형제클럽 교사로서 전통 음악과 춤을 교습하고 2세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하였다. 그녀의 전통 공연에 대한 열정은 한반도에 잠식해있던 관념과 관습들을 타파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식층 여성으로서 사회적 오명이 씌어있던 기생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전통춤과 음악을 각색한 후 비한국인 관객에게 소개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나아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적 공연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형제클럽을 성별, 나이, 출신 배경을 초월한 한인 문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남성만이 담당해왔던 민속문화의 타악기 연주를 즐겼다.

---

45) Jennifer J. Jung-Kim, 2006 "Gender & Modernity in Colonial Korea", (Ph.D. diss., UCLA), pp.35-36.

조국이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당시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일본, 중국계 이민족과 구별되는 한민족만의 독자적인 전통예술을 알리는 일은 곧 민족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전수산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동화와 화합을 도모한다는 표어 아래 개최되었던 다문화 행사에서 새롭게 각색한 한국 민속놀이, 음악, 춤을 알리는 무대를 올리는 데 공헌한 인물 중 하나였다. 아마추어 공연자로서 그녀가 참여한 무대는 당연히 한반도 내 전통 공연물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전통문화 요소를 각색하여 선보인 그녀의 무대는 정통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인사회에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단지 열정과 사명감 하나만을 가지고 한반도 내에 만연해있던 계층별, 성별로 분리된 전통음악계 도식을 깨고 한민족 문화 알리기에 이바지한 전수산의 삶은 해외 독립운동가, 민족교육가로서의 그녀의 헌신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공연 활동에 주목하여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과 자료들을 소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먼저 공연의 주요 관객에 따라서 공연 레퍼토리와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섬세하게 추적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사회고위층 백인들을 주요 관객으로 한 공연,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연, 그리고 한인사회 모임 내 공연의 레퍼토리와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한다면 공연을 수행한 이들의 '근대성' 측면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전수산의 공연 활동을 당시 미주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의 내면화 혹은 서구 부르주아 가부장제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이는 당시 다른 이민족이나 백인 커뮤니티 내 공연자들의 지위 및 공연 양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추가 자료 점검 및 분석을 통한 필자의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 연구를 마친다.

주제어 : 전수산, 식민지 근대성, 신여성, 하와이, 전통공연예술, 형제클럽, 다문화주의, 한인 디아스포라

투고일(2021. 7. 7), 심사시작일(2021. 8. 2), 심사완료일(2021. 8. 23)

〈Abstract〉

Chun Susan's Musical Activities: Embodying the Modern Women in the Korean Diaspora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hoi, Heeyoung *

This study examines diverse aspects of new women exemplified in Chun Susan's life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with a particular focus on her performance activities. Despite having no experience learning Korean music and dance in Korea, Chun taught and promoted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s a teacher of the Hyung Jay Club, the YWCA-affiliated Korean cultural organization. Second-generation Koreans of the club regularly participated in multicultural events that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hosted for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cultures of different ethnic groups in Hawai'i. Traditionally, the presen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general audiences was exclusively the realm of *gisaeng* in Korea. As an elite woman from a high-class family, Chun took the role of preserving and presenting the performing arts in Hawai'i by transcending old customs of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world. Her open attitudes toward Korean native music, regardless of religious origins, inclusion of men of different backgrounds in stage performances, and practicing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instruments, all deviated from long-established customs in Korea. Chun's cultural activities, alongside her well-known nationalist movements, aptly represent the life of modern women in the Korean diaspora.

Key Words : Chun Susan, colonial modernity, modern women, Hawai'i, traditional performing arts, Hyung Jay Club, multiculturalism, Korean diaspora

* Visiting Scholar, Department of History, Northern Illinois University.